

## 우리는 하나! 단합하고 도전하여 성취하는 결실의 해로

### 무강왕릉 수호보전으로 뿌리의식 제고 및 정체성 재정립 장학사업 활성화로 숙원과업인 청한회관 건립기반 조성



楸泰중앙총친회장

존경하는 청주한문의 100만 종친일가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국내 여건을 되돌아보면 경기침체의 지속과 고용안정,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과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어촌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친일가분들께서는 여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중앙총친회와 종사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총친회 역시 지난한해의 어려움은 떨쳐내고 2019년도 새해를 맞아 송조돈목 정신으로 하나로 화합하여 성원해 주시는 100만 종친일가분들과 더불어 청주한문의 뿌리의식 제고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합니다.

**첫째, 익산 대왕릉의 수호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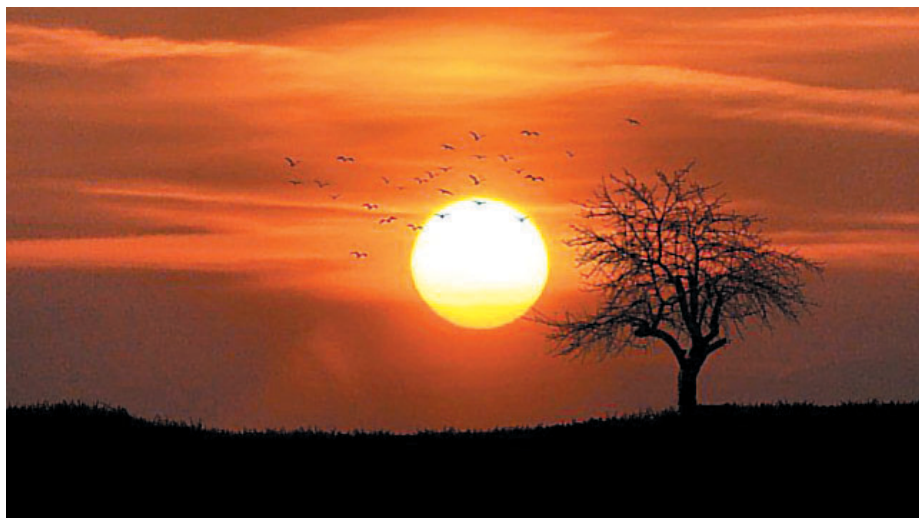
익산 대왕릉은 우리 청주한문의 원류(源流)이신 마한 태조 무강왕릉입니다.

정사기록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양식 있는 많은 사학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대왕릉 발굴조사와 짜맞추기식 결과발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대응과 항의집회 등 강력 대응하여 우리 선조의 유적을 수호하고 뿌리의식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감은 물론 진실 앞에 왜곡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둘째, 장학기금 확충추진으로 장학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숙원과업인 청한회관 건립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청주한문의 후손을 훌륭한 미래의 인재이자 국가의栋梁으로 육성하는 장학사업 활성화는 중요한 종사의 책무이자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던 중 청주 무능정이 소재한 방서동 출신인 우동일가의 장학금 출연 및 약정으로 기금을 확충하여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우리의 최대 숙원과업인 청한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년도 말에 53억원의 수익부동산과 기금을 출연하였고, 2020년까지 총 430억원을 출연키로 약정하였습니다. 거대 장학재단으로의 획기적인 약진과 함께 회관 건립에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서 명실상부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게 비상(飛上)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조묘역에 건립되어 있는 장학기금 20억 출연기념비를 85억 출연기념비로 개수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전 뿌리공원의 청주한씨 조형물을 새롭게 개수하여 건립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 경기관광공사

대전 뿌리공원에 건립된 청주한씨 조형물은 초창기 20여 년 전에 건립이 되어 노후화 되었고, 최근에 조성된 타 성씨 조형물에 비해 왜소함은 물론 청주한문을 표현하는 상징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로 많은 일가분들로부터 개수 건의가 있었는데, 금번 청주한문의 위상과 상징을 대외적으로 표명함에 부족함이 없는 조형물로 교체하여 하반기 중에 개수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종친일가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고견수렴을 통해 종사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종친여러분!

올해에는 국내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리 순탄치만은

아닐듯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마음이 된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난해의 어두웠던 기억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오는 부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출발합니다. 송조돈목과 화합의 정신으로 하나 되고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훌륭한 선조님의 고귀한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명문거족 청주한문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십시오.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한씨중앙총친회 회장 한추태

###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수 명예회장  
현수 상임고문  
기호 상임고문  
추태 중앙회장

#### 총파회장

철호 삼재관리위원장  
규동 사숙공추모회장  
태교 평간공보찬회장  
길수 서원군파회장  
성우 문경공파회장  
상익 문렬공파회장  
동수 문간공파회장  
유환 청성군파회장

선교 총성공파회장  
용진 이양공파회장  
영수 검참공파회장  
석희 문양공파회장  
기인 문정공파회장  
동완 참판공파회장  
태우 양평공파회장  
유광 찬성공파회장  
현구 절제공파회장  
덕수 안양공파회장  
태철 침지공파회장  
윤수 이랑공파회장  
송동 양이공파회장  
재국 판사공파회장

동석 정당공파회장  
치용 양해공파회장  
기일 현령공파회장  
만교 장도공파회장  
민석 장간공파회장  
상기 참의공파회장  
상청 첨정공파회장  
신석 질경공파회장  
규백 회양공파회장  
영모 세마공파회장  
석인 충정공파회장  
춘태 정혜공파회장  
동욱 평장사공파회장  
동석 전교공파회장

광수 서울사회장  
동경 부산사회장  
태락 대구경북회장  
기천 인천사회장  
창화 광주사회장  
갑수 대전사회장  
일수 울산사회장  
중률 세종사회장  
광진 경기도회장  
명수 강원도회장  
장훈 충북도회장  
영교 전북도회장

상선 등제공파회장  
문식 직사관공파회장  
입개 몽계공파회장  
승욱 예빈윤공파회장

#### 광역 시도 회장

광수 서울사회장  
동경 부산사회장  
태락 대구경북회장  
기천 인천사회장  
창화 광주사회장  
갑수 대전사회장  
일수 울산사회장  
중률 세종사회장  
광진 경기도회장  
명수 강원도회장  
장훈 충북도회장  
영교 전북도회장

만준 경남도회장  
감사 선교·승남 감사

#### 전담부회장

춘희 총정공파회장  
찬규 총의공파회장  
상우 세마공(논산)회장  
광운 유물유적전담  
석례 여성위원장

#### 청한장학회

우동 이사장  
추태 광천공장학회  
광 시외공장학회  
효동 세마공장학회(논산)  
연동 판관공장학회

길수 국산공장학회  
강 감사공장학회  
태수 성호공장학회  
상욱 청암공장학회  
태락 대구경북장학회  
춘희 충정공장학회  
명수 교위공장학회  
상필 청파공장학회  
장훈 서범공장학회  
복섭 낙안공장학회  
준석 이원공장학회  
동경 부산시장학회  
기호·기천 한인인천장학회  
상근 화정공장학회  
택수 상언공장학회  
선교 충성공장학회  
기인 문정공파회장

# 추태회장, 2018 세계효정포럼 참석

## 한국, 인구절벽 · 각종 갈등 직면/효의 가치관 회복해야 난관 극복 평화대사 등 각계 1200여명 참석, 추태회장 이사장 등 집행부 임원과 환담

지난 8월 18일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청 소년수련원에서 열린 2018 세계효정(孝情)포럼(총재 한학자/이사장 윤정로)에 추태중앙회장이 참석하여 윤정로이사장 및 집행부 임원들을 예방하고 축하와 환담을 나누었다.

효정포럼은 효문화 확산과 인성 회복으로 가정해체 ·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등에 대처하고자 2016년 출범한 민간 시민운동 단체이다.

‘효정(孝情)의 빛-은 누리에 희망으로’ 슬로건 아래 ‘디지털시대와 효정포럼의 비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일평생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참 가정운동을 위해 활동한 문선명총재 성화 6주년을 맞아 개최한 행사로, 전국의 효문화운동 중 소기업인과 시민단체, 가정연합 평화대사 등 1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

운데 전 MBC아나운서의 사회로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개회, 국민의례, 내빈축사,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이 되었다.

윤정로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을 넘어 붕괴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운을 댄 후 여기에 세대 간의 갈등, 가정해체, 성평등 주장 등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해 있다.

이런 취지에서 효정포럼은 인성을 기본으로 한 효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자 출발했다고 소개했다.

정원주 한학자총재비서실장은 축사에서 모든 평화운동의 중심에는 싱크탱크인 효정포럼이 자리하고 있어 든든하다며 한 총재님의 뜻을 바탕으로 윤이사장님과 중심지도자분들이 그간 지속적인 열정과 정

성을 쏟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는 등 많은 결실을 보게 됐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규환국회의원, 김진명작가, 윤종록 前미래창조과학부차관, 운영호세계본부사무총장 등 다양한 주제의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좌로부터 정원주(총재비서실장) 추태회장, 윤정로(효정포럼이사장), 송영길(서울평생교육원사무국장)

## 의혜공주 · 청원위공묘역 보존관리 펜스설치 및 고유제 봉행

### 청원위과중증(회장 상영) 주관으로

지난 10월 16일, 의정부시 호원동 산 119-39소재 의혜공주와 청원위공묘역에서 의정부시 임문화교육문화국장, 노영일前시의회의장, 양수前충남지사, 추태중앙회장 및 기호前회장, 상영회장 등 대내외 내빈과 후손 약15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의혜공주 · 청원위공 쌍분묘역의 수호보존 및 관리를 위한 펜스설치 기념 고유제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상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해주신 내빈과 후손들께 감사를 전하고 조선왕조 500년사에 100여명의 공주와 옹주 가운데 한곳에서 영세안면하고 보존된 곳이 몇 군데 없고 대부분 별실되거나 이장이 되었는데, 이곳의 쌍분묘는 수백년 온갖 풍상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보존 유지되어 두 분의 영령을 지키고 있다. 그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멧돼지 떼가 출몰하여 봉분을 파헤치고 잔디도 심하게 훼손하여 고사되고 있으며 무속인들이 자주 들어와 막걸리를 붓고 제물을 버리는 등 산소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관리와 보존을 위해 고심하고 논의한 끝에 안전망을 설치해서 묘역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묘역이 국립공원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사업비 또한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의정부시청에 수차에 걸쳐 향토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펜스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요청을 하였고 시에서



고유제 봉행기념(사진 원고)

도 공감할 해 1,500만원을 지원 결정함에 힘을 얻어 종회에서도 2,700만원을 투자하여 총 4,200만의 사업비로 특수 사출방식의 알미늄으로 제작하여 묘소 둘레 130여m에 안전망을 설치하였고 도난방지과 안전관리를 위해 CCTV와 Secom설비까지 갖추게 되었다. 사람의 시조가 있다는 것은 마치 나무에 뿌리와 물이 근원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뿌리가 튼튼하면 잎이 무성한 것이고 근원이 깊으면 그 흐름이 반드시 긴 것과 같다는 옛 선현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복잡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선조를 기억하는 것은 간직하여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며 슬기로운 가르침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우리문중에 중시조가 되시고 늘 경배하며 모시는 두 분의 묘소를 보다 안전하고 영구히 보존관리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조상님께 엄숙히 알리고자 오늘 고유제를 봉행하게 된 것이라 전하면서 정 말 보람있고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선 제11대 중종과 문정왕후의 2녀

인 의혜공주(1521~1563)는 당시 가부장적인 엄격한 유교사회로서 여인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희생을 강요당하는 제도 하에서 살아야만 했으나 당당히 독립자영사상을 굽히지 않고 자기변혁과 자기계발이라는 명제를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공주라는 신분을 타파한 여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에 후손들 중에는 이분을 왕신할머니로 모시는 토속신앙도 생겼다. 부군인 한경록(1520~1593)은 춘천도호부사 한승권과 창녕조씨의 2남이며,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서 1593년 임진왜란 중에 전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KBS방영 솟장수와 혼인한 공주 설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묘 앞의 비석은 지금까지도 깨끗한데 이것은 의혜공주의 동생인 제12대 명종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유제 봉행 후 정성이 담긴 예찬과 기념품도 증정함에 참석한 일가분들은 세심하게 준비하고 배려해준 상영회장과 모범적인 고유제를 체험했다는 격려와 찬사를 통해 감사함을 전했다.

##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문선명 · 한학자 총재



문선명 · 한학자총재

문선명총재는 舊소련 고로바초프대통령을 만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과 해를 시도했고, 북한 김일성주석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담판 지으셨다. 미국에 가서 소방수 역할을 하며 세계의 분쟁을 막는 일에 골몰하셨다.

팔레스타인지역에 들어가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평화행진을 벌리셨고, 200여개 국가를 돌아다니며 평화만을 부르짖으셨다.

한국과 미국 심지어는 북한에서 여러차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다. 2008년 여름 청평에서 부부가 탑승한 헬기가 사고로 추락하였으나 두 분 모두 다치신 곳이 없었다.

문선명총재는 1920년 평안도 정주군 덕안면에서 부친 문경유씨와 모친 김경예씨의 둘째아들로 태어났으며 전남 나주 옆 남평 문정흥씨 증손이다.

중앙대학교 사대부고와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였고, 1960년 평남 안주에서 한학자(청주한씨)총재와 결혼하였다.

효정포럼(문선명 · 한학자총재/윤정로 이사장-配 청주한씨 한옥선) (원고 추태중앙회장)

# 2018년 戊戌年 시조 위양공부군 세향 성황리에 봉행

## 雨天에도 경향 각지에서 남녀노소 1,200여 명의 후손들 참가 시조세향은 세세손손 연면히 이어나갈 청주한문의 아름다운 가업



시조세향 헌관(추태회장·만교회장·동수 회장)

중앙종친회(회장 楸泰)는 지난 11월 8일 (음력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우중(雨中)인 관계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위치한 세일재(歲一齋)에서 1,200여 명의 일가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18년도 무술년 시조세향 제례를 엄숙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楸泰중앙회장, 아헌관에는 萬敎장도공파회장, 종헌관에는 東秀문간공파회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鍾顯영흥공파회장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제관 분방 별항)

20여년 만에 세일재에서 봉행된 금년도 세향은 전날부터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1,200여 일가분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청장년, 청소년을 비롯해 가족 단위의 남,여 후손들이 많이 참가함으로써 향후로는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고무적인 기대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더욱이 당일 참가한 일가분들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가들과 함께 꼭 참석하겠다는 다짐으로 한결 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었다.

우리 청주한씨의 시조(諱 蘭)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서기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듬해 평양을 정치기반으로 삼기위한 첫 사업으로 평양성을 쌓게 되었는데 그 막중한 소임을 맡아 태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쌓았고, 928년(태조 11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정벌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군까지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의 품계(品階)인 삼중대공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고, 벼슬은 정일품 문하태위(門下太尉·오늘날의 국무총리급)에 올랐으며 위양(威襄)-천지는 신묘(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 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벽상공신(壁上功臣)이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후 서기 940년(태조 23년)에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면서 공신당의 양쪽 벽(壁)에 고려의 개국공신 중에서도 특별히 큰 공을 세운 공신 30명의 초상(肖像)을 그려 넣으면서 비롯된



호칭이다. 속리산맥을 타고 내려와 황간 땅에 이르러 우뚝 솟은 지장영봉(芝庄靈峰)은 사위(四圍)를 거느리고 멀리 백리에 뻗쳐 영기(靈氣)가 모였으니 이곳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永同郡 黃澗面 蘭谷理)에서 당대의 위인으로 탄생한 시조 위양공(威襄公)께서는 일찍이 청주로 이주하여 방서동(方西洞)에서 용개(龍開)평야를 개척, 큰 부호가 되었으며 무농정(務農亭·1990년 12월 14일 충북기념물제85호로 지정)을 세워 향학(鄉學)을 일으켰다.

한편 추태중앙회장은 시조세향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 시조부군의 세향봉행일을 맞아 특히 비가오는 가운데에도 경향각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가해주신 많은 일가분들을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우리의 시조이신 휘 蘭(諱 蘭)을 비롯 훌륭한 선조님들의 고귀한 업적과 유지를 기리는 한편 유적 또한 잘 받들고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우리는 종사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 훌륭한 후손들로 하여금 찬란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귀한 유산을 받들고 더욱 계승 발전시켜나감은 물론 시조세향은 청주한문의 후손들로 하여금 세세손손 연면히 이어나갈 아름다운 전통과 가업으로 기리 보존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독려했다.

이어 중앙종친회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무강왕릉의 수호보전을 통해 선조의 유적을 보존함은 물론 이를 통해 한문의 뿌리 의식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



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장학사업 활성화로 한문의 후손들을 미래의 인재이자 국가의 동량으로 육성하는 장학사업은 종사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청주한문의 숙원과업인 자체회관 확보의 기반으로 다져나가자 하는 바 일가분들의 성원과 동참을 독려했으며, 대전뿌리

공원의 청주한씨 조형물 개수사업 추진과 상세편을 축약한 소책자를 간행하여 많은 일가분들이 자신의 뿌리와 선조의 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비가오는 관계로 불편함이 있겠지만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세향 봉행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무술년 시조세향 제관 분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初獻官 : 楸泰 중앙종친회장</li> <li>• 亞獻官 : 萬敎 장도공파회장</li> <li>• 終獻官 : 東秀 문간공파회장</li> <li>• 執禮 : 鍾顯 영흥공파회장</li> <li>• 大祝 : 到榮 문열공파총무</li> <li>• 謁者 : 萬九 문정공파총무</li> <li>• 陳設 : 範九 청한예학회총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司樽 : 範九 청한예학회총무</li> <li>• 左奠 : 義傳 청한예학회</li> <li>• 右奠 : 東權 참판공파총무</li> <li>• 左奉 : 善九 영흥공파총무</li> <li>• 右奉 : 允洙 청한예학회</li> <li>• 執事 : 澤永 청한예학회</li> </ul>
------------------------------------------------------------------------------------------------------------------------------------------------------------------------------------------------------------------------------------	----------------------------------------------------------------------------------------------------------------------------------------------------------------------------------------------------

# 4위 선조 무술년 세향 봉행

## 시조묘역 내 세일재에서

초헌관 台洛 대구·경북회장·아헌관 甲洙대전회장·종헌관 圭伯회양공파회장

지난 11월 8일(목) 시조세향에 이어 시조묘역 내 세일재에서 2세조, 3세조, 4세조, 5세조를 추모하는 4위 선조의 무술년 세향이 봉행되었다. 초헌관에 태락대구·경북회장, 아헌관에 갑주대전회장, 종헌관에 규백회양공파회장이 각각 분방되어 의구(청한예학회회장)일가의 집례로 엄숙히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항)

당일 세향을 봉행한 4위 선조는 시조 하 2세조 용호군 교위군 휘 영(龍虎軍 校尉公 諱 穎), 3세조 별장 동정공 휘 상휴(別將 同正公 諱 尙休), 4세조 상의 직장공 휘 혁(常衣 直長公 諱 奕), 5세조 신호위 상장군 휘 희유(神虎尉 上將軍 諱 希愈)이다.

4위 선조는 오랜 풍상과 겹치는 세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을 뿐 유택(幽宅)이 실전(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位) 또한 실전되어 성(姓)씨마저 전해지지 않아 1985년도부터 시조묘역 내 세일재 좌편에 4위단을 모시고 매년 시조세향일에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1985년 4위 추모단을 시조묘역 내에 모시기 전까지는 전남 영광에 모신 6세조 예빈경공(禮賓卿公·諱 光胤)의 추원재(追遠齋)에 4위 신위(神位)를 모시고 예빈경공의 세향 봉행에 앞서 제례를 올려왔었다.



### 4위단 제관 분방

- 初獻官: 台洛 대구경북회장
- 亞獻官: 甲洙 대전시회장
- 終獻官: 圭伯 회양공파회장
- 執禮: 懿九 청한예학회회장
- 大 祝: 萬九 문정공파총무
- 講者: 到榮 문열공파총무
- 이하 상동

### 산신제 제관 분방

- 獻官: 泰洙 충성공파
- 祝官: 昌洙 충성공파
- 執事: 慶澤·英洙 충성공파

### 사무처 및 지원

- 接受: 一鎔 참관공파·相烈 문양공파
- 到記: 康燮 참관공파·창환 이랑공파
- 幟프: 成益 문정공파
- 촬영: 元教 사진작가
- 시조 및 4위 선조세향 사진·원고 촬영
- 차량/질서: 두환·복연·창현·건덕(경주)

## 청한예학회원 및 청주일가 등 20여 명

### 세향 준비 및 진행 자원봉사

1,2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사(參祀)한 2018년도 무술년 시조세향 및 4위 선조(2·3·4·5세조) 세향이 비가오는 가운데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봉행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전준비와 세향 당일의 안내, 질서유지 등 진행을 도운 20여명의 청한예학회(회장 의구) 회원들과 청주거주 일가들 및 일부 임원들의 희생적인 자원봉사가 있었다.

중앙회 집행부의 지원을 받은 청한예학회 회원과 청주 일가 등 20여명은 세향일 하루 전에 현지로 내려가 재실 별채에서 숙박을 하면서 세향이 끝날 때까지 청소

정리 및 천막설치, 도포와 예복관리, 앰프 설치 및 관리, 차량 출입통제용 차단기 설치 및 잡상인 통제, 헌성금 접수대 설치 및 접수, 현수막 설치, 묘역 진입로 삼거리에서부터 헌병대 앞까지의 도로에 대형버스 주차유도, 시조세향 예행연습, 행사 후의 정리 정돈 등 사전 준비와 진행, 마무리를 위한 업무를 분담하여 차질 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봉사함으로써 집행부와 일가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송을 받았다.

### ※자원봉사자 명단

원교, 태수, 의구, 종호, 도영, 경택, 영수, 동권, 의전, 일용, 강섭, 상렬, 범구, 만구, 택영, 윤수, 성익, 선구, 창하, 두환, 복연, 창현, 건덕, 재호, 순자, 영자, 옥분, 금순 (무순·직함생략)

## 시조세향 후 많은 일가들 『청한각』 참배

### 청장년·청소년 후손들과 뜻 깊은 시간

세향을 마친 후 많은 일가들은 각 종파문중과 지역종친회별로 버스 또는 승용차를 이용 젊은 후손들과 함께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 위치한 시조탄생유지를 성역화한 청한각을 참배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뜻 깊은 일정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 청한예학회 정기총회 개최

### 신임회장 의구일가 선임 및 회칙 정비



태봉사 탐방기념

청한예학회(회장 만춘)는 지난 12월 12일 중앙종친회회의실에서 동훈위원, 의구 부회장, 종호일가, 범구총무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만춘회장의 사임에 따라 임시 의장인 종호일가의 진행으로 이어진 회장 개선에서 신임회장으로 의구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으며 회칙 개정을 통해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신임의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분들의 성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청한예학회 조직을 확대하고 중앙회 추진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고

연구 노력해 나가자고 독려하였다.

한편 지난 12월 22일에 시행한 익산지역 사적 탐방행사에는 기호회장, 만교회장, 의구회장을 비롯 4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강왕릉, 미륵사지, 태봉사, 기준산성, 마한관 등을 탐방 견학하였으며, 마한역사의 권위자이신 김명환교수의 특강을 통해 익산 대왕릉은 마한 태조 무강왕릉이자 청주한문의 역사라는 확고한 뿌리인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었고 무강왕릉수호추진위원회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 시조세향에 108명, 1,823만원 헌성

경기도宗亲회(회장 光傳) 120만원/추태회장, 승수총리 각각 100만원

지난 11월 8일에 봉행된 시조세향에 경기도宗亲회에서 120만원, 추태중앙회장, 승수총리께서 각각 100만원을 헌성하는 등 108명의 일가들이 1,823만원의 성금을 헌성하였으며 총성공파 선교회장은 시조세향에 올리는 제주로 민속주 5병을 원교일가는 와인, 음료 등을 헌물로 헌성하였다. 헌성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향헌성금			
단위: 원			
이름	금액	이름	금액
경기도宗亲회(광전)	1,200,000	부천宗亲회(종옥)	100,000
승수(제39대 국무총리)	1,000,000	사수공추모회(규동)	100,000
추태 중앙회장	1,000,000	서산시宗亲회(기만)	100,000
(재)청한장학회	1,000,000	성동광진구宗亲회(수창)	100,000
장도공파종중(만교)	500,000	순천宗亲회	100,000
회양공파종중(규백)	500,000	양절공파주부공파종중(청주)	100,000
청한산악회 회원일동	500,000	양혜공파종중(치용)	100,000
문간공파종중(동수)	300,000	영암군宗亲회(기동)	100,000
삼재관리위원회(철호)	300,000	영흥공파종중(종호)	100,000
참판공파종중(동완)	300,000	용인시원삼면종중(등계공파)	100,000
파주시宗亲회(덕수)	260,000	월포공파종중(광구)	100,000
김교참판공파종중(영수)	200,000	정읍시중구종중(영호)	100,000
대구경북宗亲회(태락)	200,000	찬성공파종중(유광)	100,000
대전宗亲회(갑수)	200,000	참의공충신지파나주종중	100,000
문양공파종중(석희)	200,000	천안청장년회(동근)	100,000
부산宗亲회(동경)	200,000	충주계일종회(정당공)	100,000
서원군파종중(길수)	200,000	충주시宗亲회(동석)	100,000
여명공파종중(청주)	200,000	파주교하동宗亲회	100,000
인천시宗亲회(기천)	200,000	판관공파종중(연동)	100,000
전북도宗亲회(영교)	200,000	평간공파방찬회(대교)	100,000
참의공파종중(상기)	200,000	평해공파수원종중	100,000
참의공회충지파종중(근준)	200,000	갑전(처사공파)	100,000
청장년회원 일동	200,000	경석(서울 강남구)	100,000
청한예학회	200,000	기하(경기 파주시)	100,000
충북도宗亲회(장훈)	200,000	기호(전 중앙회장)	100,000
충의공파종중(찬규)	200,000	도전(처사공파)	100,000
충정공파종중(춘희)	200,000	동권(참판공파종중)	100,000
판서공파승산종중(상영)	200,000	만구(문정공파 총무)	100,000
현령공파종중(기일)	200,000	만실(양절공파)	100,000
화성시서신면宗亲회	200,000	상길(상당구 남일면)	100,000
강, 승수(참의공파안산종중)	200,000	상남(청장년회 회장)	100,000
삼랑(청한산악회 회장)	200,000	상열(문간공파 총무)	100,000
승남(중앙회 감사)	200,000	성관(총성공파)	100,000
구미시宗亲회	150,000	용준(장도공파)	100,000
문정공파종중(기인)	150,000	의구(청한예학회 부회장)	100,000
강북도봉종친회	100,000	일용(연기현감공파회 총무)	100,000
강화군宗亲회(영선)	100,000	준희(양절공파)	100,000
경남宗亲회	100,000	태호(몽계공파) 인천	100,000
합천군가야면宗亲회(몽계공파)	100,000	필석	100,000
고성군宗亲회(삼렬)	100,000	현섭(인천宗亲회 전 총무)	100,000
고창군宗亲회	100,000	흥억(파주시 교하동)	100,000
공주시宗亲회(상돈)	100,000	기달(회양공파) 강북구	50,000
관악구宗亲회 일동	100,000	대석(청장년회 감사)	50,000
광주宗亲회(창화)	100,000	동훈(무농회 회장)	50,000
김포시宗亲회	100,000	상민(참의공파)	50,000
나주시宗亲회	100,000	상분(청장년회 총무)	50,000
남원백촌종중(참의공파14세)	100,000	성교(대구 북구)	50,000
논산세마공파종중(상우)	100,000	우석(청주시 오창읍)	50,000
논산宗亲회(광석)	100,000	원교(서울 서대문구)	50,000
논산태능참공파종중	100,000	윤동(경기 김포시)	50,000
마포구宗亲회	100,000	차식(문정공파)	50,000
목사공회정부파(흥수)	100,000	정노(정혜공파)	40,000
문간공하참판공파안산반월종중	100,000	주택(문정공파) 청주	30,000
문열공파종중	100,000	총성공파종중(선교)	제주 5병
부산영도구宗亲회	100,000	<b>합 계</b>	<b>18,230,000</b>

# 淸城君(諱 承舜, 12世)종중 무술년 세향 봉행



청성군 세향봉행

청성군파종중(회장 유환)은 지난 11월 10일(음, 10월 3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604-3소재 청성군부군 묘소에서 유환회장을 비롯 종원 80여명이 참석하여 성향을 이룬 가운데 무술년 세향 제례를 엄숙

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유광, 아헌관에는 현구, 종헌관에는 동일, 축관에 덕수일가가 각각 분방되었으며 두환일가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청성군(諱 承舜)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종간공(諱 理)의 차남이며 평간공(諱 公義)의 손자로 고려 우왕 6년(1380)에 출생한 후 太宗 10년(1410) 무과에 급제해서 世宗 9년(1427)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肅宗 29년(1447) 嘉善大夫 中樞院 副使에 오르고 肅宗 30년(1448) 6월 향년 69세로 卒하시었다.

공의 3子 정란공신 서구(靖難功臣 瑞龜)의 策勳에 따라 순충보조공신 병조판서 청성군(純忠補祚功臣 兵曹判書 淸城君)을 증직 받았다.

# 서원군파종회 임시총회 및 송년모임개최

길수회장, 매사 신중을 기하고 중앙회 추진사업에도 적극 동참 독려



임시총회에서 길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원군파종친회(회장 吉洙)는 지난 12월 7일 오전 11시 종로구 관수동소재 은행나무집에서 창고교문, 길수회장을 비롯 천식, 만교감사, 강, 상청, 근준회장 등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겸 송년모임을 개최하고 서원사 사적비 수급,

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등 종사의 현안 문제를 논의 하였다.

길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쌀쌀한 날씨임에도 경향각지에서 성향을 이루어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전하고 청주한문을 삼한갑족이라 칭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매사 신중을 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중인 장학기금 확충사업에 관한 설명과 함께 중앙회 추진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고교문은 국내유수의 청한장학재단으로 발전하여 많은 후손들에게 혜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으며 만교회장은 익산무강왕릉 수호를 위한 추진 경과와 현황 설명에 이어 여러 문중에서도 내일처럼 적극 동참하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혜공파종친회 전국 임시총회 개최



양혜공파 임시총회

양혜공파종친회(회장 치용)는 지난 12월 8일 대전소재 금성삼계탕에서 치용회장을 비롯 종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단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재운총무의 사회로 전국에서 참석하신 일가분들의 소개와 치용회장의 종무경과 보고에 이어 양혜공의 묘소 전체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인천도시공사와 보상과 관련하여 협상 중인 사항 등을 설명하고 전국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각 지역단위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과 회칙개정 등을 통해 조직체제를 정비하고 종중의 활성화를 위해 단합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조선의 문신이자 예종의 國舅이신 襄惠公(諱 伯倫, 14世)은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 겸 嶺經筵事와 監春秋館事를 역임하시고 성종조에 淸川府院君에 진봉되시었다. (양혜공파총무 在潤)

# 청한장학회, 기금 460억의 거대 장학재단으로 도약

## 佑東신임이사장, 2020년까지 430억 출연약정, 회관 건립계획도 장학회 이사회 및 중앙총친회 임시총회 결의



(재)청한장학회가 청주한문의 명성에 걸맞은 46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장학재단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청한장학회와 중앙총친회는 각각 10월과 11월 2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주 방서동 출신의 우동일가(사진)께서 총 430억원(2018년 53억, 2019년 287억, 2020년 90억)의 장학기금 출연을 약정함에 따라 신임이사장으로 선임한 후 12월 3일 개최된 임시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을 결의하였다.

신임이사장에 선임된 우동일가는 청주 방서동출신(이랑공과 34세)으로 어려운 생활여건을 탈피코자 일찍이 서울로 이주하여 힘든 일을 마다않고 다양한 직업을 섭렵한 후 종자돈을 확보하여 불려나갔고 현재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는 기업인 동삼건설(주)과 단독주택 건설업 업종의 (주)건영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그동안 창출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심하고 이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초에는 독자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총친회 추태회장의 간곡한 권유와 설득으로 청주한씨중앙총친회와 산하 청한장학회에 출연하기

로 결심하고 이행을 하게 되었다. 결심 및 이행 후 우동 신임이사장은 청주한문의 후손으로서 청주한씨중앙총친회 및 청한장학재단과 함께 종사를 도모하게 됨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청한장학재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출연약정 기금 중 일부는 서울 양재동에 200평정도의 건축 부지를 확보한 후 약 10층 정도의 회관을 건립하여 청주한씨중앙총친회관·(재)청한장학회관으로 명명, 함께 사용하고 임대사업을 통해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체회관이 건립되면 중앙회의 제 1의 숙원과업을 실현할 수 있게 됨에 많은 기대와 염원을 담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큰 결단으로 이행해 주신 우동 이사장님께 지면을 통해서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청한장학회는 1999년 10월 청주한씨중앙총친회가 모태가 되어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이래 많은 종파문중과 종원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동참하여 2018년도 말 기본재산을 32억원으로 증액하고 그간 18회에 걸쳐 978명에게 9억 8,0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과실금이 감소하여 목적사업 이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목적사업의 범주와 장학금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회비(10~12월) <small>단위:원</small>	
이름	금액
정해공파종중	2,000,000
석인 부회장(충정공휘방도 회장)	1,000,000
춘희 부회장(충정공파회장)	1,000,000
만교 부회장(장도공파 회장)	1,000,000
선교 부회장(충성공파 회장)	1,000,000
문식 부회장(직사관공파회장)	500,000
일수 부회장(울산사회장)	500,000
기천 부회장(인천사회장)	500,000
기인 부회장(문정공파 회장)	500,000
명수 부회장(강원도회장)	500,000
규근 운영위원(고흥군회장)	400,000
상돈 운영위원(공주시회장)	200,000
근수 자문위원(충남 청양군)	200,000
창교 자문위원(서울 성북구)	200,000
태교 자문위원(평간공파회장)	200,000
병동 운영위원(경주시회장)	200,000
석우 운영위원(용인사회장)	200,000
삼철 운영위원(고성군회장)	200,000
영수 자문위원(서울 서대문구)	200,000
규동 자문위원(인천 부평구)	200,000
선교 감사(대전 서구)	200,000
인섭 이사(경기 광명시)	100,000
길상 이사(전북 남원시)	100,000
영학 이사(경기 여주시)	100,000
성규 이사(서울 구로구)	100,000
상익 이사(서울 영등포구)	100,000
경완 이사(경북 경주시)	100,000
상훈 이사(경북 경주시)	100,000
병준 이사(서울 관악구)	100,000
광석 이사(논산사회장)	100,000
명석 이사(서울 구로구)	100,000
일용 이사(경기 남양주시)	100,000
창상 이사(충남 보령시)	100,000
기달 이사(서울 강북구)	100,000
영수 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b>합 계</b>	<b>12,300,000</b>

일반찬조헌성금(10~12월) <small>단위:원</small>	
이름	금액
하다리총친회	200,000
<b>합 계</b>	<b>200,000</b>

단체정보비(10~12월) <small>단위:원</small>	
이름	금액
인천시총친회	300,000
고성군총친회(삼렬)	200,000
공주시총친회	200,000
파주시총친회	200,000
하다리총친회	200,000
순천시총친회(기호)	100,000
평성읍총친회(택용)	100,000
<b>합 계</b>	<b>1,300,000</b>

개인정보비(10~12월) <small>단위:원</small>	
이름	금액
근수 자문위원(충남 청양군)	100,000
상섭(충남 천안시)	100,000
상영 자문위원(경기 의정부시)	100,000
진출(서울 서초구)	100,000
기석(경기 남양주시)	50,000
도교(경북 상주시)	50,000
명철(서울 성동구)	50,000
삼량 이사(서울 관악구)	50,000
상덕(강원 평창군)	50,000
재명(서울 성동구)	50,000
정순(경기 화성시)	50,000
추태 회장(중앙회장)	50,000
상덕(인천 남구)	30,000
상욱(서울 송파구)	30,000
영석(경남 합천군)	30,000
완식(부산 사하구)	30,000
진택(경기 의정부시)	30,000
춘부(서울 중구)	30,000
경수(서울 노원구)	20,000
광수(전북 전주시)	20,000
구수(서울 성북구)	20,000
규장(충남 천안시)	20,000
동순(전남 해남군)	20,000
두경(전남 나주시)	20,000
만교 부회장(장도공파 회장)	20,000
만엽(서울 서초구)	20,000
만응(충남 서산시)	20,000
만철(서울 서초구)	20,000
상무(경기 화성시)	20,000
상수(전북 정읍시)	20,000
영수 이사(경기 김포시)	20,000
용규(경북 영천시)	20,000
우영(서울 마포구)	20,000
원렬(전북 완주군)	20,000
정일(전북 정읍시)	20,000
주용(경남 창원시)	20,000
천덕(강원 원주시)	20,000
호석(경기 고양시)	20,000
회수(경기 고양시)	20,000
명석(서울 금천구)	10,000
<b>합 계</b>	<b>1,410,000</b>

무강왕릉수호대책위원회 헌성금 <small>단위:원</small>	
이름	금액
장훈 부회장(충북도회장)	2,000,000
추태 회장(중앙회장)	1,000,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0
갑수 부회장(대전시회장)	1,000,000
규백 부회장(회양공파회장)	1,000,000
동경 부회장(부산사회장)	1,000,000
태락 부회장(대구경북회장)	1,000,000
찬규 부회장(충의공파 회장)	1,000,000
동수 이사(문간공파회장)	500,000
준석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100,000
<b>합 계</b>	<b>9,600,000</b>

장학기금 납부내역(10~12월) <small>단위:원</small>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2212	우동	125,000,000	(운영경비)	2219	종만(파주시 문산읍)	1,000,000	1,000,000
		5,196,567,600	5,246,567,600	2224	창용(파주시 광탄면)	1,000,000	1,000,000
1753	만우(세마공) 대전 서구	20,000,000	30,100,000	2223	흥억(파주시 교하동)	1,000,000	1,000,000
1936	판관공단위장학회	15,000,000	170,000,000	1840	상우(세마공) 서울 동작구	900,000	1,000,000
492	효동(세마공) 대전 중구	10,000,000	112,000,000	2180	기림(경북 구미시)	550,000	1,550,000
1916	상목(경북 구미시)	1,000,000	7,000,000	2179	박경욱(경북 구미시)	550,000	1,550,000
65	기달(서울 강북구)	1,000,000	3,000,000	2181	웅희(서울 강남구) 구미시	550,000	1,550,000
1661	각동(세마공) 서울 영등포구	1,000,000	2,200,000	808	하다리총친회	500,000	6,800,000
1820	자원(세마공) 대전 서구	1,000,000	2,000,000	2115	기대(세마공) 대전 유성구	500,000	1,000,000
2214	인구(세마공)	1,000,000	1,000,000	2114	기택(세마공) 서울 강동구	500,000	1,000,000
2213	주현(세마공) 충남 논산시	1,000,000	1,000,000	2113	기돈(세마공) 대전 서구	500,000	1,000,000
2215	태구(세마공)	1,000,000	1,000,000	50	정해공파종중	500,000	1,000,000
2216	만우(세마공) 서울 강북구	1,000,000	1,000,000	2124	상준(세마공) 충남 공주시	500,000	500,000
2217	재석(세마공) 경기 용인시	1,000,000	1,000,000	276	규석(경기 김포시)	300,000	1,910,000
2220	기동(파주시 금촌동)	1,000,000	1,000,000	2228	상덕(강원 평창군)	100,000	100,000
2226	기태(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1,000,000	1,000,000	884	정수(광주 동구)	50,000	1,400,000
2222	기하(파주시 교하동)	1,000,000	1,000,000	1172	원렬(전북 완주군)	50,000	270,000
2218	덕수(파주시 문산읍)	1,000,000	1,000,000	2194	영석(경남 합천군)	30,000	60,000
2225	선경(파주시 광탄면)	1,000,000	1,000,000	834	기영(강원 강릉시)	20,000	740,000
2227	일석(파주시 조리읍)	1,000,000	1,000,00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000	620,000
2221	정수(파주시 금촌동)	1,000,000	1,000,000	<b>합 계</b>	<b>5,391,677,600</b>		

# 중앙종친회 임시총회 및 송년모임 개최

### 익산 대왕릉은 마한 태조 무강왕릉! 자명한 역사적 진실 鮮于氏 및 奇氏門中과 帶同 무강왕릉 수호 강력 대응기로

중앙종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12월 3일 11시 신촌소재 K-Turtle에서 기호회장, 길수회장, 강회장, 만교회장을 비롯 종파 문중 및 광역시도회장과 대의원 약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8년도 임시총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 대왕릉 발굴조사에 따른 현황보고를 통해 지난 7월 대왕릉에서 발견된 인골을 분석한 결과 백제 무왕릉에 가깝다는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발굴조사 중간결과 발표는 수년전부터 이어온 익산시 주도의 짜맞추기식 결과보고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 종파문중 및 지역종친회는 물론 선우씨와 기씨문중과도 대동하여 법적인 대응

과 연명부 서한발송 및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뜻을 함께하는 사학자 및 지역인사 등과 다각으로 연계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경비조달을 위한 성금모금에도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을 만장일치 결의하였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여 피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뒤편에 반가움을 표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익산 대왕릉 발굴조사에 따른 대응과 대책을 비롯해서 장학재단 운영 및 주요 현안과업 추진에 관한 현황 보고와 일사 분란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임시총회에서 추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특히 익산 대왕릉 발굴조사에 따른 중간발표는 익산시와 발굴단의 짜맞추기식 진행으로 전개됨에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바 강력한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한 고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중보 256호,관련기사 참조)

**무강왕릉 수호 추진기금 모금에 많은 성원바랍니다.**  
국민은행 009902-04-323878  
예금주 한추태

## 서울·수도권 청장년회 호명산·퇴골 산행



청장년 호명산 산행 기념

서울·수도권청장년회(회장 상남)는 지난 11월 11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명산을 찾아 11월의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호명산은 높이 632m로 산에 바위가 많으며 옛날에 산림이 우거지고 호랑이가 울어대던 산이라

해서 호명산으로 불린다 한다.

1979년에 산 정상에 양수발전용 호수인 호명저수지가 조성되었고 차편으로 호수 정상까지 오를 수 있어 관광객과 단체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북한강

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등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강원도 춘천소재 퇴골의 상남회장 댁으로 산행을 겸한 1박 2일의 일정으로 단합 야유회를 다녀왔다.

## 한인산악회 12월 정기산행



은 김유신장군의 부친께서 이곳에 돌로 돌레가 1300m에 이르는 성을 쌓았으며 성안에 샘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샘터와 신라시대의 토기조각

인천종친회 산하 한인산악회(회장 태호)는 지난 12월 11일 (매월 둘째 주 화요일) 기천회장 등 회원 약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진천에 소재한 만뢰산으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이 발견되고 있는 이곳은 백제의 침입을 방어하였던 신라서북국경지대의 요충지였다.

인근 비선골에 있는 석비(보물 404호)와 최근 건립된 우리나라 최대목탑인 보탑사 3층목탑이 볼거리이다.

진천에서 제일 높은 612m의 만뢰산

## 익산현지에서 무강왕릉수호대책위원회 잇따라 개최

### 태봉사, 기준산성, 마한관 등 史跡탐방, 마한 연원의 확고한 신뢰 재정립



마한관 탐방기념

무강왕릉수호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과 12월 27일 중앙회추태회장을 비롯하여 만교회장, 태락회장, 동수회장, 연동회장, 갑수회장, 동석회장, 승남감사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현지를 찾아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역사인식에 대한 우리문중의 입장, 무강왕릉 문제해결 기본방향 설정 및 문제해결 후 문중의 시행과제, 종회원 서명운동 전개와 추진비용 확보방안, 선우씨와 기씨문중과의 대동 협조문제, 자문변호사 선임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과제를 승인하고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익산지역에서 30여년간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백제의 익산 천도설과 대왕릉은 백제 무왕릉이라는 왜곡된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한역사바로세우기에 전념하고 있는 사학자 김명환교수가 동석하여 익산시의 그릇된 역사왜곡과 마한역사에 대한 특강에 이어 태봉사, 기준산성, 마한관 등의 사적을 탐방하고 정사 기록에 근거한 마한 역사는 명백한 청주한씨의 역사라는 설명과 해설을 통해 대왕릉은 마한 태조 무강왕릉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됨에 하나로 단합하여 더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였으며, 김교수 또한 청주한문의 큰 관심과 동참에 힘을 얻어 적극 협력 대응하여 진실을 밝히고 바른 역사 정립에 힘써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그릇된 왜곡에 대한 반성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면을 통해 사학자의 본분으로 정의사회 구현에 고군분투하시는 김명환교수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 진주종친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진주종친회(회장 한규학)는 지난해 12월 21일 11시30분에 진주시 인사동 소재 상심합집에서 회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덕원 감사로부터 감사보고에 이어 사무국장의 결산보고 및 경과보고, 기타 토의 시간, 신입회원 환영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규학 회장이 마련한 총

회 기념품이 배부되었다.  
규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일 년 동안 진주종친회를 위해 협조해주신 일가님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기해년에는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올해는 시조 시향제에 참석하는 해로 회원과 가족이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바란다” 라고 했다. <원고 사무국장 한윤갑>

중앙종친회장 동정

승희국세청장 및 상대검찰총장 예방, 환담

종사 현안 및 발전방안 등 논의



좌측 승희청장



좌로부터 추태회장·태교회장·상대총장·희족회장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10월 승희국세청장(사진 상단)과 상대前검찰총장(사진 하단)을 예방하고 종사 현안과 장학사업 활성화 방안 등 종사발전을 위한 의

견과 환담을 나누었다. 춘희총정공파회장, 태교평간공파회장과 희족울릉도회장이 각각 자리를 함께하였다.

청한산악회 11월·12월 정기산행

겨울 설경이 아름다운「덕유산」과 서울의 명소「관악산」으로



덕유산 함적봉 산행기념

청한산악회(회장 삼랑)는 지난 11월 25일(일) 회원 약40명이 참석한 가운데 4계절 특색있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 덕유산으로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전남 무주와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에 걸쳐있는 덕유산은 함적봉을 중심으로 청량하기 그지없는 계곡과 장쾌한 능선, 전형적인 옥산의 아름다움, 넓은 산자락과 만만치 않은 높이(1,614m)를 갖고 있어 산악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봄철쭉, 여름 계곡, 가을 오색단풍, 겨울 설경의 아름다움이 유적과 어우러져있고, 특히 겨울의 덕유산은 마치 히말라야의 고봉들을 연상케 하는 곳이다.

당일은 안개가 많이 끼었지만 함적봉을 향하는 등산로 주변의 나무와 숲, 바위에 아름답게 피어난 상고대의 경관이 반겨준

에 터져 나오는 감탄과 함께 일상에서 찌든 마음 일부를 내려놓게 하니 실로 산행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는 곳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한편 지난 12월 23일에는 중앙회 추태회장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악산을 찾아 12월의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서울과 안양시, 과천시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로 예로부터 수도서울의 방벽으로 이용되어온 관악산(632m)은 교통과 경관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전사면이 비교적 가파르고 암반이 많아 쉽지 않은 등산로이지만 이날 참석회원 전원이 들레길 산행을 완주하여 화합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하산 후 식사 자리에서 삼랑회장이 식대를 부담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우리 청한장학회의 대도약을 기원하며

옥동자를 출산하는 산모의 고통도 크지만 그 옥동자를 큰 인재로 키우는 노력은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다.

우리는 젊은 날 청운의 꿈을 품고 창업을 하며 전력투구하지만 그 결과는 용두사미가 되기도 한다. 주위환경과 사회적 여건 그리고 본인의 현명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다.

우리 청한 장학재단도 이제 20살 성년이 되면서 32억이라는 상당한 기금을 정립하였다. 처음엔 100억 정도 빌딩을 꿈꾸었지요.

1999년 10월 29일 우리는 청주한문이 그렇게 소원했던 청한장학재단설립의 힘찬 깃발을 올렸다. 당시 심재현수회장님의 흥분된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열려 전국의 100만 일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으니 2005년 세항일에 시조부군 묘역에 20억 달성 기념비를 세우고 장학금지급의 쾌거를 시작하였다.

그후 설송, 해인회장님을 거쳐 현 광천 추태회장님께서 2018년말 32억이라는 나름대로 기금을 이루었음을 선포하시니 우리 100만 일가들의 피와 땀이 뭉쳐진 정성 바로 그 결정체인 것이다.

그 결과 금년 2018년 5월 19일 제 18회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47명의 장학생에게 3,6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회로 성장한 것을 기뻐하며 시조 할아버님 앞에서 우리 모두 축배를 높이 들고 기쁨의 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시조부군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하시며 한우동이라는 귀한 일가를 추태회장님을 통해 추천하시니 우동일가께서도 쾌히 응하시어 400여억원을 흔쾌히 내놓겠다 하시었다.

그러나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그분의 뜻을 밝힌바 돈가는 곳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인지라 32억보다 10배이상 거액을 출연하니 그에 걸맞게 정관을 개정 이사 10명중 본인이 8명을 정하고 잔여 2명만 기존장학회 이사 중 선임하며 우동일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이 안을 놓고 누차에 걸친 이사회의 열띤 토론과 결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 12월 3일 중앙종친회 총회에서 장장 2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49대 37이라는 투표결과를 발표하는 추태회장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원안이 통과되는 순간이다. 물론 장학회 정관상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지만 우리 청한장학회는 원래 중앙종친회 품속에서 태어



영교전북회장

났고 그래서 이사장도 중앙회장이 겸하고 있는 남다른 장학회이기에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했던 것이다.

20살 성년으로 성장한 우리 청한장학재단을 생면부지의 그 분에게 이사장과 다수 이사를 넘겨주는 인간적 아픔 그 허전함을 토로하는 반대측 대의원들의 절

규가 애절함은 우리 모두의 아쉬움이 었다.

그러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야한다는 대의명분을 헤아릴 줄 아는 대의원들이 결국 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만장의 우뢰와 같은 박수는 거대 장학재단으로 거듭나는 진통을 거쳐 축배의 함성이 종식 만찬까지 이어졌다.

이제 국내 굴지의 장학재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추태회장님은 계속 무거운 짐을 지셔야 합니다.

첫째 사무적으로 결의안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합니다. 철저하고 정확한 성품이시니 우리는 믿고 맡길 것입니다. 둘째는 우동일가가 중앙회에 참석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청주한씨의 분향 청주! 거기에서도 무능정과 방정이 지키고 있는 대머리는 청주한문의 분향 중에서도 꽃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우던 그분은 28세에 청운의 꿈을 품고 상경하여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각 분야를 섭렵하며 마침내 건설업으로 대성하여 1000억 이상의 거상으로 성장했으니 그 청운의 꿈을 키우신 한문의 자랑스런 인걸 중 한 분으로 오늘날 젊은이들의 아이콘이 되신 것입니다. 이랑공파회장으로서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석하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가간의 이질감이 없어지고 시조할아버님의 같은 피를 나누어받은 일가로서 화학적 동화를 이루게 되는 날 우리 모두 그분의 손을 잡고 열싸안으며 그 큰 현성에 백배 치하와 감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종친회에서도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하며 불원간 장학재단과 중앙종친회 간판이 나란히 햇볕에 유난히 빛나는 거대빌딩 앞에서 전국의 백만 일가들이 축배를 높이 들어 청주한씨 만세를 부르는 날. 시조할아버님께서도 천상에서 내려다보시며 미소를 보낼 것입니다.

추태회장님은 거기까지 꼭 이끌어 나가시어 우리 한문의 역사에 큰 전기를 마련하시기를 기대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그 이름도 한씨거대장학재단이 힘차게 다시 출발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세모에 전북도회장 영교